

2006년 창업하여 산업용 Embedded system 개발 공급 및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휴먼인텍(대표 변병주, www.hmnit.com). 2년 여의 기간동안 진동량 측정 계측기, 지문인식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 ISDB-T USB type dongle, 전력 모니터링 장비의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용 시스템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용 콘트롤러 전문회사로의 성장을 목표로 성큼성큼 전진하는 휴먼인텍을 만나본다.

# 휴먼인텍

www.hmnit.com

하드웨어 개발 및 로우레벨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으로 짧은 시간동안 이같이 여러 장비들을 개발할 수 있는 배경에는 변병주 대표의 다양한 이력이 뒷받침된다.

“창업 전 다닌 직장에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하였습니다. Workstation, PMP, 기계 진동 Monitoring 시스템, 휴대전화 등이었죠. 최종 근무했던 회사가 SK텔레텍이었고, 주로 해외향 GSM 단말기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할 만큼 해봤고, 뭔가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다” 싶어 사업을 시작했다는 변 대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마땅한 아이템이 없어 주로 제품 개발 서비스를 하게 됐다.

현재 주력 제품은 산업용 터치 모니터 시스템인데, Embedded 환경으로 개발 완료되어 모 전력 IT 전문회사의 비상 발전기 콘트롤러에 납품하고 있다. 추후에도 다양한 터치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고, 산업환경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콘트롤러를 Customizing하여 최적의 솔루션으로 개발,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및 국내 몇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일반적인 제품인데, 휴먼인텍은 고객의 입맛에 맞는 가장 최적의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맞춤형 사업을 특징으로 한다.

1년여 동안 개발 및 테스트를 한 후에 납품후 거래처로부터 제품이 좋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을 때 많이 기뻐했다는 변대표는 사업을 등산에 비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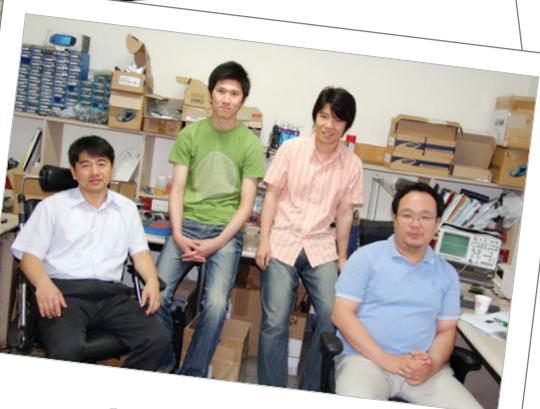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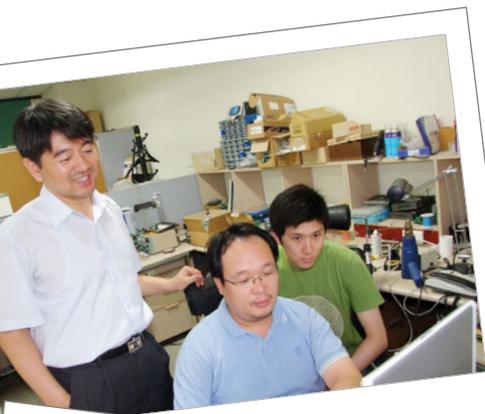
“요즘 등산을 자주 하는데요, 가파른 산을 오를 때 숨이 턱까지 차서 힘들 때도 있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기쁩니다. 사업도 등산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많지만 결국 이겨내고 한발한발 앞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정상에서 웃을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결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변대표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걸어가는 정도를 중시한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도움과 감동 때문일 것이다.

“처음 회사를 설립하고자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선뜻 사무실을 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양에서 한번, 가산디지털 단지에서 한번, 세 번째에야 처음으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였습니다. 초기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 기회를 빌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먼인텍이 잘 되고 그런 여유가 생긴다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께 제가 받은 만큼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뜻을 모아 같은 곳을 향해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 주는 가족, 좋은 제품을 개발했을 때 믿고 그 제품을 구입해 줄 수 있는 거래처... 경영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가 만들어 내는 유기체의 집합이며, 그 유기체를 문제없이 조율하며 이끌어 가야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대표라 생각한다고.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를 좋은 도서로 추천하는 변대표의 모습에서 “종업원, 고객, 주주,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책 구절이 생각난다. 기술속에 사람의 체온을 담은 휴먼·인·텍 이라는 회사이름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 ‘신기술 비즈니스의 메카’를 꿈꾸는 중앙대창업보육센터

글로벌 시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끊임없는 노력과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이다. 중앙대 신기술비즈니스센터는 입주기업이 졸업 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단계에서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단계별 사업성 평가 및 기업 성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정책자금 지원, 마케팅, 홍보 지원, 인증제도 활성화, CEO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원래 센터의 특화 분야는 영상산업기기 제작 및 응용 콘텐츠 개발 분야였으나 현재는 신기술 분야 제조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센터 내 제조업 대 서비스 산업의 비율은 7:13이나 센터 내 인적 구성이 신기술을 지원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기술 기반의 제조업 비율을 더욱 높여갈 전망이다.

## ●●보육센터 입주/졸업/내외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보육센터 입주/졸업/내외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보육센터의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산학협력, 산산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기술개발을 확대할 수 있고 기업간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나 판로개척 역할도 용이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운 애로 사항 등의 고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나누거나 해결책을 풀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에 상호회 운영, 반기별로 진행되는 워크샵, 연 1회의 애뉴얼 리포트 발행 등을 진행하며 졸업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졸업기업과 센터(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산산협력의 한 예로 TRS(레프즈가방 디자인)와 마이도기(디자인)의 상호 협력이 눈에 띄는데, 마이도기는 TRS의 지원으로 중국 공장에서 관련 제품(각종 앨범)을 생산하여 6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이후 현재 판매를 1위를 달리고 있으며, TRS는 마이도기의 판매망을 활용해 다양한 레프즈형 가방을 판매하고 있다.

센터 내의 대표 기업으로는 온오프라인 심리검사, 교육컨텐츠를 서비스하는 (주)아이진로(IJINRO)와 친환경 무수은 평판 광원을 개발한 포테그라프스(주)가 있다.

지난 1999년 개소한 중앙대학교 신기술비즈니스센터(센터장 황호정)는 신기술 기반의 사업화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배양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산업고도화에 기여하며, 신기술창업보육(TBI) 사업자 배출, 다수의 벤처기업 육성, 발명대회 및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등을 통한 학생 창업 유도 및 유망 창업자 발굴과 창업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 중앙대 신기술비즈니스센터

- \* 센터 장 : 황호정
-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 \* 특화분야 : 영상산업기기 제작 및 응용 콘텐츠 개발 분야, 신기술 분야 제조업
- \* 입주기업 : 예비창업자 2개, 벤처기업 9개, 일반기업 9개
- \* 문 의 : 02)820-6217

## ◎ 입주업체가 말하는 중앙대 신기술비즈니스센터

“기본적인 지원과 더불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입주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등 기술적인 지원이 활발한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